

[ TV ]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TV 소설, 아침마당, KBS 뉴스, etc.

비 월드투어 취소 공방 팽팽

스타엠 "현지 기획사 준비부족·계약위반이 원인"

현지 기획사 "공연장 때문에 취소는 말도 안돼"



18일 가수 비의 월드투어 주관사인 스타엠의 박매희 이사, 이인광 대표, 김정훈 무대감독 (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수 비(본명 정지훈·25)의 월드투어 주관사인 스타엠이 북미지역의 공연 취소 위기에 대해 '현지 공연기획사의 준비 부족과 계약 위반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관사로서 각 지역 프로모터를 잘못 선정한 책임은 재차 인정했다. 이인광 대표, 박매희 제작이사, 김정훈 무대감독 등 스타엠 관계자는 18일 오후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투어의 출발부터 작금의 사태까지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가장 논쟁이 된 적은 현지 프로모터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북미 투어의 취소 사유. 스타엠은 2월 레블루션엔터테인먼트와 북미지역 5회(캐나다·하와이·애틀랜타·뉴욕·샌프란시스코) 공연 관련 계약을 맺었으며 레블루션이 이를 현지 공연기획사에 위임한 형식을 취했다. LA 지역만 스타엠이 리브러라는 현지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스타엠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북미 각 지역의 공연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

다. 캐나다는 △공연에 부적합한 공연장 대관 스티켓 가격 협의 없이 판매 시작(최고가 약 420달러) △협의 안된 아티스트의 프로모션 방문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이며, 하와이는 △장비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무대 구조 사용 △'레인' 서비스권 소송이었다. LA 공연에 대해서는 △무대 설치 시간의 절대적 부족 △L.A.마라카는 투어 장비에 대한 LA시의 철수 결정 △현지 프로모터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준비 미비를 취소 배경으로 꼽았다. 이밖에 '레인' 서비스권 소송과 레블루션의 계약 위반 역시 공연 취소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하와이 공연은 미국 음반사 레인 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레인' 명칭 사용금지가처분신청 결정을 기다려 진행하기 빠듯해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한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캐나다 공연기획사인 레블루션 캐나다의 김중호 부사장은 "공연에 부적합한 공연장 대관"이 취소 사유란 건 말이 안된다"며 "2월 (레블루션과) 쓴 계약서에 공연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5월 이를 빌미로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클리의 민동일 팀장은 "공연 취소나 재개에 대해 스타엠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우리에겐 법적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Living TV 리릭헌터(낮 12시) 광고. 시드니 폭스는 역사 교수이며 매력적인 유물 사냥꾼이다. 그녀는 조요 나이젤과 함께 세계 곳곳의 진실적인 진실들을 찾아 나선다. 디비에가의 약삭 빠른 행동으로 시드니와 나이젤이 어쩔 수 없이 공자의 유물 단지를 찾는 디비에가를 돕는 상황에 이른다. 하지만 그 유물 단지가 보관되어 있는 곳은 엄청난 양의 지뢰가 밀집되어 있는 곳. 조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는 지뢰밭에 가야만 하는 시드니와 나이젤. 과연 그들은 무사히 공자의 유물 단지를 찾을 수 있을까?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 MHz) 광고. 오전 7:05 출발! 광주대행진, 낮 12:05 TBN 차차차, 오후 5:00 쌍안경 전망대, 6:05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 교통정보 제보 080-333-8000(수신사 부담) 光州日報 뉴스(오후 2시)

창업 25년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 (062) 225-9970.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견전지(بات데리) 가격인하.

케이블·위성TV 19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TV channels (YTN, MBN, KTV, SBS, MBC, EBS1, KBS Prime,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July 19th.